

‘무소유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다

변택주 작가, ‘법정, 나를 물들이다’ 출간



법정, 나를 물들이다
변택주 지음
불광출판사
1만5000원

우리 시대 ‘무소유’라는 큰 화두를 남기고 간 법정 스님. 스님의 가르침은 ‘무소유’가 틀림없을까? ‘법정 스님=무소유’라는 명제에 과감히 반기를 들 뻔했던 책이 출간됐다.

법정 스님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작가는 12년 동안 법정 스님 범회 사회를 본, ‘맑고 향기롭게’ 前 이사이다. 그가 최근 <법정, 나를 물들이다> 출간에 부쳐 “법정 스님의 메시지는 무소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저자는 책 제목이 출판사의 고사로 끝내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무소유가 아니다’가 되지 못했다고 말한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말씀했지만, 그게 스님이 전하려던 핵심 메시지는 아니다. 사람들이 법정 스님 메시지를 무소유 하나로 한정하는 게 못내 아쉬워서 소리 한번 지르고 싶었습니다.”

저자가 펴낸 책은 법정 스님과 함께 가서(同行) 법정 스님과 함께 행복했던(同幸) 열아홉 사람의 인연 이야기. 본지에 연재되고 있는 ‘법정 스님과 만난사람들’을 모은 책이다.

책에는 성철 스님 시봉일기로 유명한 원택 스님, 종교 벽을 허물고 우정을 나눈 장익 주교, 온 누리 어머니로 사는 원불교 박청수 교무와 같이 우리 시대에 큰 길을 가는 종교인이 말하는 법정 스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독보적인 자기 예술 세계를 구축한 조각가 최중태, 법정 찾잔으로 스님과 인연을 이어 간 도예가 김기철, 그림으로 시를 쓰는 화가 박항률, 농사꾼으로 변신한 방송인 이계진처럼 잘 알려진 이들이 만난 스님의 모습도 만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여년간 스님 어머니를 모신 사촌동생 박성직, 팽이 한 자루 들고 등산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파 내려오던 백지현, 스님이 왜 길상사에서 딱 하루만 묵으셨는지 사연을 들려 준 홍기은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 비친 법정 스님도 있다.

그들에게 법정 스님은 어떤 분일까? 스님에게 그들은 어떤 존재였을까?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법정 스님의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를 만날 수 있는 책은 독자들에게 법정 스님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듯

한 경험을 선사해 준다. 그 속에서 법정 스님이 우리에게 진정 전하려던 메시지가 종이에 물 스미듯 물들어 온다.

저자는 책을 마무리 하는 글에서 ‘법정, 나를 물들이다’라는 제목이 자신의 집필 동기를 충분히 담지 못했다고 적고 있다. “스승은 홀로 스승이 아니다”라며 법정 스님과 저자가 하나도 아니지만 둘도 아닌 것을 강조한다.

“법정 스님과 나는 서로 주고받았는데, 책 제목은 법정 스님에게서 나온 것이 내게 한 방향으로 흘렀음을 의미하니 반쪽짜리 제목입니다.” 지금은 사바 세계에 계시지 않는 스승을 그리워하는 제자가 스님이 항상 강조하신 불이(不二)와 연기(緣起)로 풀이한 헌답이다.

책에는 스님과 인연 있는 이들이 늘어놓은 재미진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진명 스님은 법정 스님에게 퇴박을 놓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불일암을 찾는 바람에 법정 스님이 참기 힘들

법정 스님과 함께한 19명의 이야기

장익 주교, 이계진 등 다양한 인물들

다고 하니 진명 스님은 대뜸 “스님! 그게 싫으시면 글 쓰지 마세요. 글을 쓴다는 건 사람을 부르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도 많은 고민 끝에 어렵사리 찾아오는 건데 그렇게 예의 없는 사람 취급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라고 욕박지른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이 무소유가 아니라 발칙한(?) 저자가 본 스님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

저자는 책 4장 머리글(264-267쪽)에 친절하게 적어 두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고?”로 시작하는 스님의 오관계 풀이에 담겨 있는 그 뜻이다. 바로 나는 나지만 내가 아니라는 것, 나를 살아 있게 하기까지 유명을 달리란 수많은 목숨들, 못먹숨의 살신공양으로 이어온 삶을 헛되게 보내지 말아야겠다는 다짐, ‘중이 밥값이나 하고 가야겠다’던 스님 말씀의 속뜻이다. ‘제 몸을 기꺼이 내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어머니 은혜와, 심고 가꾸고 거두어들이던 수많은 손들이 흘린 땀을 헤아려, 날뭉숨이 아닌 은뭉숨으로 살라’는 가르침이다.”

이 책을 보고 인드라마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숲 속의 정갈한 기운을 생각나게 하는 법정 스님의 마당에 싱그러게 함께해 온 사람의 숲 향기가 참 좋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oetana@hyunbul.com

서재탐방 | 목정배 동국대 명예교수

“책은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길잡이”

“책을 읽을 땐 꼼꼼으면서 읽어야”
<숫타니파타> <왕오천축국전>은 위대한 불서

“종양동 × ×번지 가주세요.” 택시기사에게 번지수를 알려주고 몸을 실었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곳은 서울 성북구 종양동의 한 주택가.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번지수가 달랐다. “여기 말씀하신 번지수가 맞아요.” 택시기사 안내에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문패아래 우성매직으로 집주인이 알려준 번지수가 쓰여 있다.

초인종을 누르자 동그런 인상에 한복을 차려입은 백발의 노인이 우리를 반겼다.

한국불교학의 거목이자 석학인 목정배 동국대 명예교수(76). 불교교리학과 계율학 권위자인 그는 불교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로 손꼽히기도 했다. 40여 년간 제자 교육에 헌신해온 목 명예교수는 현재 서울 신당동 약수법사(藥水法寺)에서 <삼국유사> 원전과 <기신론> 등을 강의하고 있다.

아담한 2층 주택에 들어서자 시서화(詩書畵)에 능한 그답게 집안 곳곳에 작품들이 걸려있다.

“뭣 땀에 왔는고. 내 보여줄게 없는데...” 목정배 명예교수에게 서재 보여주기를 요청했다. 평생 불교학에 매진해온 석학의 서재는 어떠한 궁극했다.

“책? 없어! 서울불교대학원대학에 다 갔다. 기증했어.”

2002년 동국대 교수직을 정년퇴임한 목정배 명예교수는 2004년까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총장을 지내며 그곳 도서관에 7000권이 넘는 도서를 기증했다. <초조대장경> <팔대장경> 등 불교경전을 비롯해 각종 문·사·철 도서까지 30여 년간 교수생활을 하며 공부하고 수집한 책들이었다.

목 명예교수는 2층 방 한 칸을 서재로 쓰고 있었다. 서재에는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에 기증하고 남은 2000여 권의 장서들이 빼곡하게 쌓여있다. 곳곳에는 작은 불상 조각과 애연가였던 그가 즐겨 쓰던 파이프와ライター도 놓여있었다. 열반한 前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막역한 사이였음을 보여주는 젊은 시절의 사진들도 보



목정배 명예교수는 “서재의 작은 법당”이라며 불상을 소개했다.



목 교수는 정년퇴임 후 서울불교대학원대학에 7천여 권의 장서를 기증했다. 현재 서재에는 2천여 권의 책이 쌓여 있는데도 매주 대형서점에 가서 책 2권씩을 습관적으로 산다.

었다. 목정배 교수는 “최근 인문학 서적을 많이 읽고 있다. 1주일에 한 번씩 대형 서점에 들러 책 2권씩 산다”고 했다.

목 명예교수는 70여 년을 살아오는 동안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들을 소개했다. 그는 우선 <숫타니파타>를 꼽았다.

“<숫타니파타>는 어려운 용어나 내용이 없는 쉬운 불경이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진리만큼은 심오해요. 한 구(句) 한 구 외우기도 쉽죠. 만약 작곡을 할 줄 안다면 <숫타니파타>를 가사로 한 노래를 만들고 싶을 정도예요. 이렇게 쉬운 구절을 노래로 만들어 부른다면 불자들이 그 뜻을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목정배 교수는 해초 스님이 쓴 <왕오천축국전>도 소개했다.

“해초 스님은 교통도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부처님의 고향을 혼자 답사하고 기록했어요. 부처님이라는 한 인물을 알기 위해 작은 신라 땅에서 출발해 중국을 거쳐 히말라야를 넘어갔다 다시 와서 정리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러시아 문호들의 책도 즐겨 읽은 목 교수는 톨스토이의 <인생독본>,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좋아한다고 했다.

“톨스토이의 작품은 부처님의 <아함경>과 같아요. 톨스토이의 작품들이 이습우화에 따른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습우화는 <백유경>에서 나왔거든요. 인생에 도움 되는 글들이 참 많아요.”

목정배 교수는 이 밖에도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라쇼몽> 등 소설들과 내용 선사의 시 등 고승대덕의 시집과 어록도 즐겨 읽는다고 했다.

대학원 시절 <법광경> 보살계를 연구한 목정배 명예교수는 원효·승장·의적·태현이 찬술한 <법광경 주석서>를 섭렵하고 번역을 마쳤다. 최근 들어 목 교수는 그때 공부했던 원고들을 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교편에서 물러난 후에도 끊임없이 불교 공부에 매진하고 강의활동을 하는 목정배 교수의 원동력은 책에 있

었다. “책은 사색을 하게 해주고 동시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방향이 됩니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사색하는 공간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책을 읽을 땐 한 줄을 읽더라도 꼼꼼이 읽어야죠. 마음이 느끼도록 만들어 읽은 책 구절 하나하나가 자기 삶, 주변사람들에게 도움되게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글=이아나 기자 oasis1983@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hollo@hyunbul.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4~1/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내려놓기)	법륜	정토
2	마음수업	이광정	휴
3	엄마수업	법륜	휴
4	인생을 낭비한 죄	박원자	돌
5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	명진	말글빛남
6	망설일 것 없애 당장 부처로 살거나	도법	불광출판사
7	마음행기 명상 멘토링	김정호	불광출판사
8	지금 이 순간 그대로 행복하라	틱낫한	더난출판
9	인생을 바꾸는 하루 명상	보경	조계종출판사
10	금강경, 문수보살이 물고 부처님이 답하시다	이수덕	운주사

*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장 의
최 종 태
방 해 자
박 청 수
김 기 철
원 택
이 계 진
진 명
박 항 륜
돈 연
노 일 경
문 현 철
강 정 옥
백 지 현
박 성 직
현 장
이 창 속
피 상 순
홍 기 은

법정, 나를 물들이다

변택주 지음 | 352면 | 15,000원

www.bulkwang.co.kr

법정 스님과
행복한 동행을 한 사람들

법정, 나를 물들이다

법정 스님 메시지는
무소유가 아니었다

“법정 스님과 인연을 맺었던 19명에 대한 기록이자, 스님의 메시지를 향한 우회로다.” _경형신문
“스스로에겐 엄격했지만 어려운 이웃에겐 알게 모르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던 스님 면모를 보여준다.” _조선일보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 마치 길처럼 철두철미하게 함께 나누는 공유(共有)였다.” _문화일보
“법정 스님은 음식에 들어가 맛을 들이면서도 본연의 향을 잃지 않은 생각 같은 분이였다.” _매일경제

무비 스님이 전하는 이 시대 희망의 메시지

유정불

당신은 부처님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이 바뀐다

무비 스님 지음,
4*6판, 양장본, 168면
값 9,000원